광주문화재단 CEO형 전문가 물 건너 가나

29일 5명 면접…후보자들 기대 못미쳐 재공모 여론도
86억원 불과한 기금 늘리고 제대로 활용할 인물 필요

지역문화계 관심을 모았던 광주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 공모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애초 기대됐던 기금 확보를 할 수 있는 'CEO형 전문가' 대신에 경영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관련 경력도 없는 후보들이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 공모 전에 "윤장현 시장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따로 있다"는 말이 돌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우려해 전문가들의 지원이 저조했다.

문제는 광주문화재단을 비롯해 전국 문화재단의 큰 힘이었던 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이 2016년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금이 떨어지면 돈이 없는 지역 문화재단은 제대로 일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이에 따라 기금을 모으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주문화재단의 새 수장 자리는 적임자를 찾을 때까지 재공모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5일 광주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이번 대표이사 공모에는 모두 7명이 서류를 접수해 오는 29일 5명이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다.

면접을 앞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 언론인, 광주지역 지역구 전 국회의원, 시인, 연극인, 영상 예술인 등 5명이다. 공모에 참여한 나머지 2명은 서류 미비 등으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를 앞두고 지역 예술계에서는 재단기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기금을 확보하고 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가를 원했지만 면접을 앞둔 공모자들을 놓고 보면 다소 기대에는 못 미친다.

광주문화재단의 목표 적립금은 500억원에 달하지만 현재 86억4100만원밖에 적립되지 않았고, 재단 운영의 독립 척도가 되는 올 자체자금 비율도 광주가 2.21%(전체예산 169억2200만원 중 3억7400만원)에 불과하다. 그 어느 때보다 경영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는 뜻이다.

지역 문화재단이 탄탄하지 못하면 정부의 예술 관련 예산 지원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예술인과 시민에게 돌아간다. 실제 인천시문화재단의 경우 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시 재정이 어려워져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을 계획보다 연기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다수 정부 예산 지원은 각 지역 문화재단의 예산 부담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돈이 없으면 정부 지원사업도 제대로 따 올 수 없다. 또 광주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도 기금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후임 대표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광주의 한 예술인은 "전문가가 지원하지 않아 비전문가를 뽑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적임자가 없으면 2차, 3차 공모를 해서라도 광주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홍빈(오른쪽) 대장과 나관주(왼쪽)·한용수 대원이 지난 15일 마나슬루 등반 도중 제 1캠프(5800m) 부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원정대 제공〉

김홍빈 마나슬루 정상도 올랐다

나관주 대원과…히말라야 14좌 중 9개봉째 등정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50·트렉스타 홍보이사) 대장과 나관주(47·오지로투어 대표) 대원이 25일 세계 제 8위의 거봉인 마나슬루(Manaslu·8163m) 등정에 성공했다.

이로써 광주·전남 산악계에서 활동하며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도전중인 두 대원은 각각 9개 봉을 올라 목표 달성까지 5개봉만 남겨놓았다.

'2014 한국마나슬루원정대'(단장 강행옥)에 따르면 김 대장과 나 대원은 전날인 24일 밤 마지막 캠프인 제 4캠프(7400m)를 출발해 25일 오전 10시39분(현지시각) 정상을 밟았다.

지난달 29일 출국해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한 대원들은 지난 2일 캐러밴(베이스캠프까지 물자를 운반하며 전진하는 행위)을 시작해 11일 베이스캠프(4800m)에 도착했다. 이어 15일부터 4개의 공격 캠프를 차례로 구축한 뒤 23일부터 정상 도전에 나섰다.

김 원정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은 몬순이 끝나지 않아 변덕스런 날씨속에도 베이스캠프에 도착한지 보름만에, 캠프 개척에 나선지 열흘만에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아웃도어 전문브랜드 트렉스타가 후원한 이번 도전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 대장은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매킨리(6194m) 단독 등반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열 손가락을 잃었다.

하지만 포기는 없었다.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1997년 유럽 엘브루즈(5642m)부터 2009년 남극 빈슨매시프(4897m)까지 12년에 걸려 세계 7개 대륙 최고봉을 올랐다. 이어 8000m급 14좌로 눈을 돌려 에베레스트, K2, 가셔브룸 Ⅱ, 시샤팡마, 마칼루, 다울라기리, 초오유, 칸첸중가까지 8개 봉을 등정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작아지는 생선 대물은 어디로…

저인망 영향 크기·어획량 줄어

큰 생선 어획량이 줄면서 밥상에 오르는 생선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25일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고등어 어획량은 2011년 13만8729t에서 2012년 12만5143t, 지난해 10만2114t으로 2년 새 26.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참조기 어획량은 5만9226t에서 3만5279t으로 40.4%, 전복은 162t에서 119t으로 26.5% 줄었다.

특히 상품화할 수 있는 크기의 수산물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해 밥상에는 점점 작은 생선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2000년대 소매점에서 파는 고등어는 통상 450g 내외였지만 지금은 300g 안팎이 주류다.

큼직한 수산물이 줄어든 것은 연근해 저수온 현상으로 전반적인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또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저인망 싹쓸이 조업, 어린 생선 남획 등도 영향을 미쳤다.

상품가치가 높은 수산물이 적어지고 가격은 오르면서 국내산 생선을 외면하는 소비자가 많아지자 유통업체도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 점포에서 품귀현상을 빚는 대형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왕 수산 기획전'을 연다. 시중 상품 2배 크기의 고등어(약 600~800g)를 마리당 7800원에 파는 등 크기로 상위 10% 안에 드는 생선 약 10만 마리를 준비했다.

김형탁 홈플러스 수산팀 바이어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DJ 센터 '광주 ACE 페어' 개막

최첨단 문화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4 광주 ACE 페어'가 25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관람객들이 각종 콘텐츠 상품과 부대 행사를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원전 소재 5개 자치단체장 원자력안전위 참여 추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기초단체의 장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영광군으로 구성된 '원전 소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최근 실무협의회를 열어 원전 소재 기초단체의 장의 원안위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초단체들은 다음달 15일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전이 있는 지역 기초단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장군의 한 관계자는 "원전 건설과 운영에 지역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안위에 원전 소재 기초단체장이 참여하면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해 원전 운영과 관련한 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산지 쌀 값 '뚝'

2년래 최저…80kg 산지서 16만6764원

최근 산지 쌀값이 작년 가을 수확기보다 더 떨어져 16만원 중반까지 내려오는 등 2012년 10월 이후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농업연구기관인 GS&J 등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달 15일 80kg당 16만6764원으로 3개월 전보다 1.39%(2352원) 하락, 작년 10월 부터 시작된 약세를 이어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풍수해 피해가 적어 풍작이 예상되는데다 내년초 쌀 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외국산 쌀 유입 가능성에 따른 경계감도 쌀값 하락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지 쌀값은 작년 수확기(10월5일) 18만4000원에서 곧바로 약세 전환해 지난 5월말 17만원대로 내려왔고 9월 들어 낙폭이 더 커져 16만6000원선까지 떨어졌다.

특히 지난 15일 산지 쌀값은 작년 동기의 17만5552원보다 5.01%(8788원) 하락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쌀 경작지 보호 등을 위해 쌀값이 하락했을 때 지원하는 쌀 변동직불금이 2010년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1월) 평균 쌀값이 농식품부 목표가격인 80kg당 18만8천원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올해 예산은 3153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연합뉴스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의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 과 세 예 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금호지점/풍암지점

동문대로[두암동]랜드마크
주선메디컬센타 임대
말바우시장 핵심상권
· 위치 : 두암동 말바우 시장 은병원 옆
·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 준공 : 2014년 12월 초
상담
진 공인중개사 010-6205-6020